

釜山地域의 朝鮮時代 古文書 研究의 成果와 課題

김 동 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고문서 연구의 시기적 추이
- III. 고문서 연구 성과의 개관
- IV. 고문서 연구의 동향과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
- V. 고문서의 발굴과 연구를 위한 제안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사에서 고문서는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1차 사료이다.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문서연구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 1991년 한국고문서학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국에 산재한 고문서를 수집, 간행하는 방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담보한 고문서의 발굴과 간행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고문서연구의 경향에서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에서도 부산지역사를 정리·체계화하는 노력이 고조되고 있다.¹⁾ 1990년대에 부산지역 관련 고문서가 새로 발굴되면서, 고문서를 통해 조선후기 부산의 역사상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

많은 양의 고문서가 발굴되고 연구되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고찰해 보는 부산지역 고문서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다만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이에 관한 古文獻 資料」를 발굴 정리하면서 「새로 발굴한 자료에 대

1) 부산지역사의 연구 현황은 아래 글을 참조 바람.

윤용출 외, 「전근대 부산·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1994; 최경숙 외, 「근현대 부산·경남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같은 책; 洪淵津, 「釜山の 地方史 研究現況」 『港都釜山』 8집,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1; 「釜山史 研究現況」 『항도부산』 10집, 1993; 姜大敏·朴仙愛, 「釜山史 研究機關과 研究現況」 『文化傳統論集』 2호,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4.

2) III장의 <목록> 참조. 부산 지역의 사료 조사 현황은 김동철, 「釜山·慶南地域 史料 調査·蒐集 現況과 向後的 課題」 『제15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발표요지), 1998 참조.

한 해설과 논평」이 이루어진 정도이다.³⁾

1988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활동 재개, 1991년 『항도부산』 복간, 그리고 1989년 『東萊史料』의 간행이 부산지역의 고문서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기적 추이를 검토한 위에서, 고문서 연구 성과의 개관, 고문서 연구의 동향과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하고, 앞으로 고문서의 보관, 정리, 발굴, 연구, 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중요한 고문서 연구성과가 조사의 미비함으로 인해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산지역 고문서에 대한 첫 연구사 정리에서 오는 부족한 점은 보다 나은 연구사 검토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II. 고문서 연구의 시기적 추이

부산지역 고문서의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먼저 시기적으로는 어떤 계기가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성과를 한 단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하였을까? 부산시사편찬위원회라는 관변 단체와, 개별 연구자의 성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港都釜山』, 『東萊史料』의 간행, 이 두 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1)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항도부산』

3) 閔善姬·孫淑景·李勛相,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 부산교회사연구소, 1995.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는 『항도부산』의 간행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도부산』 제1호에는 「歷代先生案(官案)」이라는 이름 아래, 「東萊府使先生案, 東萊府廳先生案, 慶尙左水營先生案, 多大浦先生案, 影島僉使先生案」이 활자화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⁴⁾ 이 선생안 가운데 앞의 두 선생안은 동래군청, 나머지 세 선생안은 개인 소장이었다. 『慶尙左水營先生案』은 『항도부산』 2호에 추가 보완되었다.⁵⁾

1962년 당시 동래군청에 소장되어 있던 『동래부청선생안』은 현재까지 원본의 소재를 알 수 없다. 『항도부산』 1호에 수록된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선생안은 조선후기 동래의 향리사회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⁶⁾

196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부산시사편찬위원회는 1975년부터 1988년초까지 활동이 중단되었다. 『항도부산』은 1962년 12월 1호가 간행된 이후, 부정기적으로 1969년 1월 7호까지 간행된 후 폐간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에 『항도부산』에 수록된 고문서들은 발굴 이후放棄된 상태였다. 당시 이들 고문서를 적극 활용한 연구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1970년대 말 이후가 되어서야 동래부사, 경상좌수사, 다대포첨사 관련 선생안을 이용하여 조선후기 동래 지역의 수령이나 수사, 첨사의 교체실태를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⁷⁾

부산시사편찬위는 13년의 공백을 깨고 1988년 11월부터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 첫 번째 성과가 바로 『부산시사(1~4)』(1989. 12~1991.

4) 『항도부산』 1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2, 21~71쪽.

5) 『항도부산』 2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3, 429~436쪽.

6) 李勛相, 「朝鮮時代の 呂司와 作廳-豊基의 『郡司謄錄』과 『行任案』(附: 東萊의 『府廳先生案』-)」 『아시아문화』 6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319~320쪽.

7) 李源鈞, 「朝鮮時代の 守令職의 交遞實態-東萊府使의 경우-」 『釜大史學』 3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79; 「朝鮮後期 地方官職의 交遞實態-『慶尙左水營先生案』과 『多大浦先生案』의 비교-」 『釜大史學』 9집, 1985.

6) 완간으로, 부산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기본작업을 토대로 부산시사편찬위원회는 부산역사의 종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의 발굴 간행, 역사연구지의 발간, 당대사 자료의 체계적 정리 보존,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사 연구에 초점을 두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⁸⁾

1969년 7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항도부산』이 20여년이 지난 1991년 12월 8호(복간 1호)로 복간되었다. “이번에 복간되는 『항도부산』은 1970년 이후 간행이 중단되었던 것의 맥을 잇고, 향토사 관련 자료의 발굴은 물론 향토사 각 분야의 올바른 정립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釜山市像을 설계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향토사연구지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⁹⁾고 한 발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항도부산』은 향토사 관련 자료의 발굴에 주력한다고 하였다.

『항도부산』 8호부터는 <논문>과 함께 <자료>, <자료소개>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자료발굴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자료발굴에도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발굴 성과의 기대치를 상승시켰다. 그에 따라 <목록>에서 보는 것처럼, 1993년에는 조선후기 고문서 관련 연구 2편이 동시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목록>의 19편 가운데 『항도부산』에 게재된 것이 6편이나 된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이처럼 부산지역의 고문서 발굴에 관심이 고조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우선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항도부산』의 복간을 들 수 있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함께 대학 부설 연

8) 洪淵津, 앞의 논문(1991), 306~307쪽.

9) 『항도부산』 8호, 1991, 「발간사」 참조.

10) 김동철, 앞의 논문, 14쪽.

구소의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한국민족문화연구소로 개칭),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한국학연구소로 개칭) 등은 부산 지역 사료의 조사, 수집, 정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의 성과는 <목록>의 19편 가운데 3편이다.¹¹⁾

2) 『동래사료』의 간행과 무임 연구

조선후기 동래는 남쪽 변경의 수비를 담당하는 國防의 요지였다. 따라서 일반 군현들과는 달리 국경 방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 기구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 군인의 직제가 마련되었다. 즉 武廳과 武任이다. 무청을 만든 후 각 무청의 무임을 역임한 자의 성명을 등재한 先生案을 작성, 유지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각 武廳의 先生案은 동래의 사회 신분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였다.¹²⁾

조선후기 동래 지역 각종 무청의 선생안은 부산 충렬사와 동래기영회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¹³⁾ 이 가운데 충렬사 소장의 『將官廳先生案』, 『別軍官廳外先生案』, 『教鍊廳先生案』, 『作隊廳外先生案』은 『동래사료 1』에 영인 수록되었다.¹⁴⁾ 『동래사료(1~4)』의 간행은 부산 지역 고문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래 기영회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기영회 소

11) 김동철, 위의 논문, 12~13쪽.

12) 閔善姬·孫淑景·李勛相, 앞의 책, 44쪽; 閔善姬, 「朝鮮後期 東萊의 鄉班社會와 武廳-朝鮮後期 鄉班社會의 支配構造와 社會移動問題에 대한 一試論-」 『歷史學報』 139집, 역사학회, 1993.

13) 기영회와 충렬사의 소장 현황에 대해서는 李勛相, 「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運營과 그 特性-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 『한국학논집』 17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0, 188~189쪽 참조.

14) 林在讚, 「『將官廳先生案』 『別軍官廳外先生案』 『教鍊廳先生案』 『作隊廳外先生案』 解題」 『東萊史料 1』, 여강출판사, 1989, 27~38쪽.

장의 각종 무청 선생안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집인 『朝鮮後期 東萊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가 1995년 간행되었다. 이 자료집은 『동래사료(1~4)』의 후속작업이란 의미에서 『동래사료 5』가 되었다. 이로 인해 충렬사와 동래기영회에 소장된 무청 선생안은 모두 발굴되어 영인 간행되었다.¹⁵⁾

『부청선생안』과 함께 각 무청 선생안의 간행으로 조선후기 동래 지역의 무임 조직과 이서 조직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들 선생안의 발굴 간행은 그후 동래 지역 고문서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동래 지역 향반, 향리, 무임 및 관련 집단이나 인물에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에는 무청과 향반사회를 비교하는 연구¹⁶⁾와 무청과 동래상인을 비교하는 연구¹⁷⁾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각종 무청의 선생안을 수록한 『동래사료』의 공간이 없었다면 이들 연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Ⅲ. 고문서 연구 성과의 개관

1) 고문서 연구 성과의 목록

지금까지 발굴, 소개, 연구된 부산지역의 고문서 연구 성과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목록>과 같다. 고문서 자료집에 수록된 「해

15) 閔善姬·孫淑景·李勛相, 앞의 책.

16) 閔善姬, 앞의 논문.

17) 김동철,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東萊武任先生案』과의 비교-」 『韓日關係史研究』 창간호,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제」는 검토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합쳐서 1건으로 처리하였다. 자료집에 들어 있는 해제 성격의 글은 제목만 각주에 명기하였다.

<목 록>

- (1) 楊孟準, 「東萊府發給 慶州崔氏一家 戶口單子」 『부산시립박물관 관연보』 4집, 부산시립박물관, 1982
- (2) 楊孟準, 「光緒十九年 東萊府文券」 『부산시립박물관연보』 4집, 부산시립박물관, 1982
- (3) 이훈상 외, 『東萊史料』(1-4), 여강출판사, 1989¹⁸⁾
- (4)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東萊鄉廳鄉校考往錄』, 1989¹⁹⁾
- (5) 李助相·閔善姬, 「朝鮮後期 東萊의 支配 엘리트와 이에 관한 古文獻 資料」 『港都釜山』 10호, 1993
- (6) 鄭景柱,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에 대하여」 『항도부산』 10호, 1993
- (7) 김동철,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 『東萊武任先生案』과의 비교」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 (8) 鄭景柱 편역, 『海雲臺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古文書』, 해운대구청 1994²⁰⁾
- (9) 姜大敏, 「東萊府 南村面 古文書 解題」 『항도부산』 11호, 1994
- (10) 鄭景柱, 「德浦洞 降仙臺古文書에 대하여」 『문화전통논집』 3집,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5

18) 李助相, 「《述亭集》(附: 路文) 解題; 尹用出, 「《萊府日記》解題; 金鉉丘, 「《多大鎮公文日錄》解題; 林在讜, 「《將官廳先生案》·《別軍官廳先生案》·《教練廳先生案》·《作隊廳先生案》解題(이상 1권); 張東杓, 「東萊地域 《邑誌》解題(2권); 李松姬, 「《明倫學校日史》解題; 金東哲, 「朴瑛宗 관계자료 解題(이상 4권).

19) 鄭景柱, 「東萊鄉廳·鄉校考往錄 解題」.

20) 鄭景柱, 「解題」.

- (11)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 1995²¹⁾
- (12) 이훈상·민선희, 「19세기 東萊府 東下面 못골의 東萊 鄭氏와 이들의 古文書」 『항도부산』 12호, 1995
- (13) 閔善姬·孫淑景·李勛相,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 부산교회사연구소, 1995²²⁾
- (14) 李源鈞, 「東萊府 吏校輩 및 三廳의 梵魚寺에 대한 討索作弊 禁止節目」 『항도부산』 13호, 1996
- (15) 김동철, 「조선후기 東萊지역 密陽 孫氏 鄉吏집안의 고문서」 『지역과 역사』 2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
- (16) 낙동문화원,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1999²³⁾
- (17) 김동철, 「18~20세기초 東萊府 巨闕里 南原 梁氏 집안과 그 古文書」 『항도부산』 16호, 2000
- (18)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부 吏族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고문서연구』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 (19) 손숙경, 「19세기 후반 關王 숭배의 확산과 關王廟 祭禮의 주도권을 둘러싼 東萊 지역사회의 동향」 『고문서연구』 23, 2003

<목록>으로 정리한 19편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 21) 張世浩,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 解題」
 - 22) 孫淑景, 「十九世紀 東萊 地域 天主教 受容의 주도자들과 地域社會의 對應」; 閔善姬·李勛相,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이에 관한 古文獻 資料: 세로 발굴한 자료에 대한 해설과 논평」; 閔善姬·孫淑景·李勛相,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
 - 23) 白珥成,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의 內容 및 資料分析」

<표 1>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의 성과(시기별)

시기	1982	1989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간수	2	2	3	2	4	2	0	0	1	1	0	0	2	19

앞서 언급한 1960년대 『항도부산』 수록 고문서를 제외하면, <목록>에서 보는 것처럼,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는 1982년 양맹준이 소개한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김석희(부산대 사학과 명예교수) 소장 고문서가 부산박물관에 기증되면서,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글이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고문서의 발굴과 연구는 1989년 이후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산지역 관련 고문서 연구사는 20년이 채 못된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 양적인 면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연구성과는 발굴과 소개, 그리고 발굴된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고문서 연구 성과의 개관

<목록>의 순으로 해당 연구자가 서술한 原著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려고 한다.

(1) 楊孟準, 『東萊府發給 慶州崔氏一家 戶口單子』

동래부 沙川面 거주 경주 최씨 一家의 호구단자를 소개한 글이다. 1759~1894년 4대 130여년간의 호구단자는 모두 47장이다. 1796~1820년분이 결손이다. <별표>에 47점의 호구단자를 발급연도, 호주 직역 나이 성명, 거주지, 호구수, 크기 등을 정리하고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단자에 호주의 이름에 개명이 잦은 것에 주목하였다.

이 집안의 거주지가 사상면 [괘내리, 감동리, 학성리, 서전리]이고, 호주의 직역에 수영대변군관, 기패관, 별군관, 별기위 등 무임직이 많은 것이 주목된다.²⁴⁾ 사상면에 거주했던 한 무임 집안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 楊孟準, 『光緒十九年 東萊府文券』

이 문서는 감결, 관문, 첩정, 서목, 사통, 공형문의 6종이다.

- ㉠ 감결은 모두 8장이다. 발급자는 경상감영(5장) 또는 암행어사(2장)이고, 수취자는 동래부(5장)이다. 작성시기는 1892년(1장), 1893년(6장)이다.
- ㉡ 관문은 10장이다. 발급자는 부산첨사(3장), 관찰사겸순찰사(2장), 성주목사(1장), 절영도첨사(2장), 진주목사(1장), 경주부윤(1장)이다. 수취자는 동래부(9장), 각관(1장)이다. 작성시기는 모두 1893년(고종 30)이다.
- ㉢ 첩정은 7장이다. 발급자는 양산군수(1장), 기장현감(3장), 영일·청하현감(1장), 장기현감(1장), 칠원현감(1장)이다. 수취자는 모두 동래부다. 작성시기는 모두 1893년이다.
- ㉣ 서목은 8장이다. 동래부사서목(7장), 동래공형서목(1장)이다. 발급자는 동래부사(7장), 동래공형(1장)이다. 작성시기는 모두 1893년이다.
- ㉤ 사통은 모두 4장이다. 발급자는 수영리(2장), 순영리(1장)이다. 수취자는 동래공형(4장)이다. 작성시기는 1893년(3장)이다.
- ㉥ 공형문은 1장이다. 발급자는 동래 호장, 기관, 장교이다. 수취자

24) 양맹준은 이들이 동래부, 경상좌수영의 군역을 담당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는 칠원 삼공형이다. 작성시기는 1893년이다.

이 글은 모두 38장의 고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또는 수취자가 동래부로서, 官府文書 가운데 동래부의 對官府[官人]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글에서는 문서의 형태만 개관되어 있고,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일 시기 동래부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3) 이훈상 외, 『동래사료(1-4)』

이 자료집은 김동철, 김현구, 윤용출, 이훈상, 장동표가 오랫동안 동래 지역사 연구 모임을 가지면서 발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래부를 비롯한 좌수영이나 다대진과 관련된 자료를 모은 것이다. 1권에 述亭集, 萊府日記, 多大鎭公文日錄, 將官廳先生案, 別軍官廳先生案, 敎鍊廳先生案, 作隊廳先生案, 2~3권에 東萊府誌(1740년)를 비롯한 각종 동래부읍지 및 영남진지, 동래군지(1937년), 釜山府誌(1937년) 등 읍지류, 4권에 明倫學校日史(1908~1909년), 都摠 上京日記 등 朴琪淙 관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都摠과 上京日記 등은 이미 공간된 것이지만, 박기중 관련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읍지류는 대부분 규장각 소장본으로 이미 공간된 것을 재편집한 것이 많다. 특히 1권에 수록된 각종 선생안은 동래 충렬사에 소장된 것으로 처음 영인 공간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이후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최초의 사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발간된 『동래향청향교고왕록』과 함께, 조선 후기 부산지역 사회경제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민선희 외, 앞의 사료집은 이 동래사료 간행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라 『동래사료』(5)라고 매겨 있다.

(4)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東萊鄉廳鄉校考往錄』

동래향교에 소장되어 온 『考往錄 卷三』 1책과 『東萊鄉廳考往錄 卷一』 1책을 영인하고, 이를 활자로 옮기고 국역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는 1985년 동래향교 고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고왕록 권3』은 향교고왕록으로, 1782~1900년의 동래향교 관련 95건의 문서가 초록되어 있다. 동래향교의 중수증건 사적과 각종 통문 정장 절목 등 문서이다. 특히 1784년 동래향교 이건에 관한 기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향권에 관계한 향촌사회 향반의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점, 관방으로서 동래의 특성과 그 사회구성의 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²⁵⁾

향청고왕록은 1605년부터 1805년까지의 동래향청 관계문서 101건의 목록과 1681년에서 1903년까지의 향청 관계 60건의 주요문서가 초록되어 있다. 문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청의 기능과 향임의 선임에 대한 기록, 향청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기록, 그리고 왜관과 관련된 동래 부산지역의 경제에 대한 기록이다. 동래에서는 향반으로 향교와 서원의 소임과 향청소임, 그리고 각 무청의 이력이 양반신분을 보장하는 중요한 경력이 되었다.

이 자료는 발굴 공개된 이후, 동래의 향반 연구²⁶⁾, 공작미 연구²⁷⁾의 기본 사료로 이용되었다. 조선후기 향교, 향청연구의 일급 사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5) 李勛相 · 閔善姬, 「朝鮮後期 東萊의 支配 엘리트와 이에 관한 古文獻 資料」

25) 鄭景柱, 「東萊鄉廳 · 鄉校考往錄 解題」, 참조

26) 민선희, 앞의 논문.

27) 김동철,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作米 問題」, 『항도부산』 10호, 1993,

조선후기 이후 동래 지역의 지배 엘리트 집단에 대한 면모를 밝힐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향반 가문, 사우, 이임과 무임 가문 소장의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 자료를 정리한 글이다. 앞에서 언급한 『동래사료』 출간 이후 새로 발굴된 상당양의 고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향반 가문(江陵 김씨, 廣州 김씨, 月城 박씨, 竹山 박씨(佐郎公派), 礪山 송씨(東洲公派), 恩津 송씨, 靈山 辛氏, 南原 梁氏, 淸州 한씨), 三節祠, 동래기영회, 이임과 무임 가문(靈山 辛氏, 慶州 이씨) 소장 고문서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고문서 소장처와 소장 고문서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그후 고문서 조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성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이다.

(6) 鄭景柱,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노인정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시대 동래 부 동하면 관련 고문서에 대한 해제다. 이 고문서는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지를 편찬하기 위한 작업으로 관내 문헌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1992~1993년에 발굴되었다.

고문서는 『東下面戶籍臺帳』(1책, 1908, 391면)을 제외하고 모두 29건이다. 이 가운데 『東面下端大洞中屯番衿記冊』(1764년, 7면), 『東面下端大洞中節目冊』(1764년, 10면), 『搜討屯番節目』(1828년, 5면), 『東下面中完議節目冊』(1791년?, 8면) 등 27건²⁸⁾에 대한 간략한 해제와 함께 이들 고문서를 ㉠ 동하면의 총체적 자치행정규범으로서의 洞中

28) 전체 28건 가운데 동하면 호적대장은 해제가 생략되어 있다.

節目, 完議節目 등의 문서, ㉠ 동하면의 토지조세 및 재정문제와 관련된 屯畚衿記, 量案揀弊錢殖利節目 등의 문서, ㉡ 동하면 소재 神堂과 관련된 경비 운영 문제를 다룬 문서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해 동하면의 역사와 자치규약은 물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까지 알려준다. 이 고문서 중 『東下面戶籍臺帳』을 제외한 나머지 고문서는 『海雲臺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古文書』에 수록 영인 간행되었다.

특히 『東下四洞節目冊』에 수록된 1769년 3월의 완의 내용은 통신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신사가 부산에 머물 때, 해운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²⁹⁾

(7) 김동철,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東萊武任先生案』과의 비교』

서울대 규장각에는 『商賈案』(奎章閣圖書 18127)이라는 이름으로 된 7책 합1권으로 된 동래상인 명단이 소장되어 있다. 이 상고안은 김용욱에 의해 일찍 소개된 적이 있었다.³⁰⁾ 그러나 이 상고안에 구체적인 분석은 이 글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 상고안은 1860~70년대에 작성된 상인명단이다. 동래부에서 상행위를 허락해 준 동래상인 명단이지만, 서로 다른 類型의 상인안이 합철된 것이다. 상고안은 가사리상고안, 상고안, 전인안으로 구분된다.

이 글은 이 7책의 상고안의 성격과 상호 비교, 상인에 대한 검토

29)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 지역의 역할」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경성대한국학연구소, 2003, 21~23쪽.

30) 金容旭, 「釜山東萊에 關한 圖書解題」 『항도부산』 1호, 1962, 270쪽.

뿐만 아니라, 이들 상고안 수록 상인과 동래 지역 각종 무청 선생안과 동래부청선생안을 대비하였다. 그리고 동래기영회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동래부상고안은 현존하는 동래상인 명단으로는 가장 많은 상인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발굴된 것으로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단순한 명단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선 후기 동래지역의 상인을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1차 사료이다.

(8) 鄭景柱 편역, 『海雲臺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古文書』

앞서 언급한 정경주의 동하면 고문서 해제 28건 가운데 「菴山神堂讚助錄」(1924년)과 「菴山神堂祭需金贊殖錄」 2건을 제외하고, 다시 2건을 추가하여 모두 28건³¹⁾의 자료에 대해 원문 수록, 원문 탈초, 원문 역주를 한 자료집이다.³²⁾ 따라서 사료집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東下面의 다른 자료인 (12) 「19세기 東萊府 東下面 못골의 東萊 鄭氏와 이들의 古文書」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9) 姜大敏, 「東萊府 南村面 古文書 解題」

부산시 남구 수영동 水營耆老會 소장 고문서에 대한 해제다. 1994년 기로회 회장단 개편시 기로회측의 제보에 따라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문서는 『南村洞案』을 비롯한 44책이다. 이 가운데 『賻儀節目』을 포함한 19책은 부산시에 기증되었다.

이 글은 19책 가운데 비교적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는 『南村洞案』(1678년, 44면), 『先生案』(1766년, 46면), 『洞中完議』(1736년,

31) 앞의 해제에서 1건으로 정리한 『大洞中改案』, 『大洞中格外案』, 『大洞中新改案』을 각각 나누어 3건으로 정리하였다.

32) 『東面下端大洞中屯番衿記冊』(1764년, 7면)은 衿記冊이라, 역문이 생략되었다. 『東下面戶籍臺帳』도 量 때문인지, 견본으로 1면만 수록되었다.

27면) 등 15건의 고문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해제하고 있다. 고문서는 ㉠ 18세기 중반기를 전후한 南村面에 관한 것, ㉡ 1910년대에 설립되어 현재에도 존속하는 수영기로회에 관한 것의 두 유형이다. 『慶尙南道東萊府戊申條帳籍』(1908년, 20면)은 南下面 大一里的 19명 호주에 관한 기록이다. 동하면 고문서와 함께 부산지역의 향촌 사회사 자료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10) 鄭景柱, 「德浦洞 降仙臺古文書에 대하여」

降仙臺는 부산시 북구 덕포동에 있는 堂山으로, 上降仙臺와 下降仙臺가 있다. 1993년 상강선대 당집에 있는 고문서가 공개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문서는 덕포동이 예로부터 上隣과 下隣의 두 마을로 나뉘어 해마다 각각 상강선대와 하강선대에서 회합하여 동제를 올리고, 또 津船을 모아서 공동운영하며, 洞山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등의 동약을 담고 있다.

고문서는 『上隣里節目冊』(정미 3월), 『津船改案座目冊』(1823년 2월), 『德圃洞上隣里改座案』(1847년 1월), 『津船新造勸助文』(1920년 1월), 21건의 「沙上面德圃里居民 等狀」(1808~1894년), 1건의 「沙上面德圃里居民 黃士千黃殷述等議送」(1887년), 모두 26건이다.

문서를 영인 수록하고, 원전을 다시 번역하였다. 원문을 활자화하여 수록하고, 초서로 된 <題辭> 부분까지 전부 탈초되어 자료의 이용에 대단히 편리하다. <원문 영인, 원문 탈초, 원문 번역, 자료 해제>라는 고문서 자료 소개의 典範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다른 자료인 (16)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리 潁陽千氏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이다. 1994년 문중에서 소장문서의 편역을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에 의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勅命, 書目, 手本, 牒呈, 牒報, 下牒, 等狀, 上書, 所志, 呈狀, 單子, 通文, 完議, 준호구, 호구단자, 호적표, 家契, 望記, (物目, 存問)單子 등 석대 천씨 고문서 255점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석대 천씨 일문의 효행과 관련된 것으로, 1741년의 호구단자에서 1918년의 표창완의문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간에 작성된 것이다. 문서 가운데 민장과 공문서류는 대개 1대 효자 千聖泰를 비롯한 천씨 일문의 역대 효행의 포상 요청을 담은 민원서류와 그 사실여부를 각 단위의 행정기관을 통해 조사 보고된 서류들이다. 호구류는 1741~1894년의 준호구, 호구단자 112점과 1897~1907년의 호적표 12점, 民有家契 2점(1901, 1905년)이다. 이들 호구 관련 문서는 석대 천씨 일문의 가계와 신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³³⁾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발굴 소개된 고문서 가운데 단일 문중의 고문서로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이라고 생각한다.

(12) 이훈상·민선희, 「19세기 東萊府 東下面 못골의 東萊 鄭氏와 이들의 古文書」

19세기 이후 동래부 동하면(현재 해운대) 지역에 세거한 동래 정씨 고문서를 소개한 글이다. 동하면 우동 동래 정씨는 원래 裁松 뒷골에 거주했던 집안이다. 임란 이후 용호동, 중동으로 흩어져 이주했다. 이 문서를 소장한 집안은 이 중에서 해운대 중동으로 들어온 파에 속한다.

소장 고문서는 준호구(18점), 신호적(12점), 일제시기 호적(4점) 등 호적류와, 천지, 한말 일제시기 향교 서간문, 일제시기 이 집안의 경

33) 張世浩,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 解題」 및 발간사(정경주) 참조

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수증, 祭文, 천석의 재산을 잃게 했던 근저당 문서, 詩文, 간찰 등 문서이다. 이들 고문서의 대부분은 한말에서 일제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대부분 이 가문과 관련되는 문서이다.

이 가운데 『池谷里中殖利記』는 1905년에서 1914년까지 동하면 내지곡리의 재정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천지는 1908년에서 1984년까지 자료이다. 1908~1934년까지 자료는 동래부민의회 의원 및 동래향교, 안락서원 관련 소임 천지이다. 동래부 민의회 원에 천거된 문서는 매우 드문 자료로 주목된다.

일제시기 금융조합 관련 문서(東萊地方金融組合員必攜簿, 組合員必攜票, 저축예금통장, 영수증), 부동산 관련문서 4건(林野賣買契約書, 賣渡證書 등)은 1936년에서 1946년 것이다.

해운대구 우동 못골 동래 정씨 가문에 대한 고문서를 ㉠ 사회지위와 관련된 고문서, ㉡ 경제 관련 고문서로 유형화하여 개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서의 원본이나 활자화 등 고문서 내용 자체는 볼 수 없다.

(8) 『海雲臺의 옛모습이 담긴 東下面古文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문서이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자료들이다.

(13) 閔善姬 · 孫淑景 · 李助相, 『朝鮮後期 東萊 地域社會의 엘리트와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

이훈상 · 민선희 (5)의 글에 「여기에 소개한 자료들의 일부는 동일책명의 편저로 출간 중에 있음을 알려둔다」(151쪽)고 하였다. 이 편저는 고문서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소장자의 사회 지위에 따른 기준에 상응하여 분류하였다. 수록 고문서는 크게 4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천주교 수용을 주도한 李廷植 가문 소장 고문서(교지, 소지, 전

령, 첩, 준호구, 호적표, 민적부, 혼서 등)과 座首 梁在鉉 관련 자료

- ㉠ 향반 가문인 강릉 김씨(준호구, 호구단자, 호적표), 광주 김씨(준호구, 호적표, 薦旨, 상서), 월성 박씨(호구단자, 준호구, 호적표, 천지), 죽산 박씨(교지, 직명, 준호구, 천지), 여산 송씨(교지, 준호구, 호구단자, 호적표, 천지, 소지), 은진 송씨(통문), 남원 양씨(준호구, 호적표), 청주 한씨(단자, 절목) 소장 고문서
- ㉡ 동래기영회 소장 각종 고문헌(名金錄, 觀德亭守護節目, 耆英堂志, 關王廟關聯 所志, 關王影堂重修勸募文, 關王廟享需費募緣文, 別軍官廳先生案, 作隊廳先生案, 敎鍊廳先生案, 別騎廳先生案, 運韜堂先生案, 執事先生案, 守堞廳先生案, 中軍廳上樑文)
- ㉢ 이서가문 및 무임 가문 영산 신씨(준호구, 호적표, 민적부), 동래 정씨(교지, 칙지, 전령, 帖, 준호구, 호구단자, 호적표, 민적부) 소장 고문서

천주교 수용 가문, 향반 가문, 이서 가문 등 가문을 직접 조사하여 발굴한 자료이다. 동래기영회의 각종 선생안 등 기영회 소장 자료도 처음 공개되었다.

편자들이 십여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고문서를 조사한 내용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간행된 고문서 자료로서는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十九世紀 東萊 地域 天主教 受容의 주도자들과 地域社會의 對應」(손숙경, 동 자료집)은 이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성과이다.

(14) 李源鈞, 「東萊府 吏校輩 및 三廳의 梵魚寺에 대한 討索作弊 禁止節目」

광무 6년(1902) 10월 궁내부가 고종의 칙지를 받들어 범어사에 내

린 절목이다. 절목의 명칭은 글쓴이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동래부의 이서와 군교, 그리고 삼청(향청, 무청, 작청)의 범어사에 대한 토색과 수탈이 심하여 승도가 이를 견디지 못해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 때문에 절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궁내부가 9개조의 절목을 만들어 범어사에 내려보내고 그 준수를 명한 절목이다. 간단한 절목이지만 당시 범어사의 상황과, 동래부와 범어사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5) 김동철, 「조선후기 東萊지역 密陽 孫氏 鄉吏집안의 고문서」

밀양 손씨의 후손인 손창범씨(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장 고문서를 발굴하여, 이들 고문서와 『동래부청선생안』을 비교하여, 향리 집안의 가계를 분석·개관한 것이다.

동래부청선생안에는 16명의 손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14명이 이 집안 인물이다. 고문서는 교지(16점), 교첩(1점), 帖(4점), 준호구(3점), 그리고 『孫氏忌墓錄』(1권)이다. 교지와 교첩은 1745~1872년, 첩은 1834~1855년, 준호구는 1831~1864년 것이다. 첩은 攝戶長, 正朝戶長 차첩이다. 이 집안은 중군은 1명도 배출하지 않았으나, 장관청, 작대청, 수첩청의 수임직을 역임한 상급 무임 집안이다. 배우자 집안의 이임, 무임직 경력도 정리하였다. 소장 고문서를 영인, 수록하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16) 낙동문화원,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낙동문화원이 『釜山 北區 鄉土誌』(1991년), 『釜山江西區誌』(1993년)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굴한 고문서이다. 「沙上戀舊祭壇保存會」와 함안조씨 사상문중 고문서이다. 보존회 소장 문서는

조선시대 연구계와 관련된 규약문서 5책, 東萊鄉約重修記, 沙川鄉約廳節目 등 향약 관련 문서가 6책, 동래부에서 사천면에 내려 보낸 政令문서가 7책이다. 함안조씨 사상문중 소장 문서는 사상면 호적중초 2책, 토지경작자 문서 1책, 장정명부 2책이다. 이 중에는 사상면의 전답을 보호하기 위해 셋강에 쌓았던 堤防 축조에 대한 문서와 사상면 토지관련 문서 등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³⁴⁾

사천면 각종 『洞案』, 掄弊錢 절목 등 각종 절목류, 牛稅畝改量案, 거민등장, 연구계 좌목 등 연구계 문서, 호적중초, 사상면 감동리 남정책 등 22건의 고문서의 원문을 영인 수록하고, 이를 국역하여 자료 이용에 용이하다. 그러나 각종 동안의 명단이 생략되어 있고, 호적중초도 견본만 수록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沙川洞案』에 수록된 「東萊鄉約重修記」(1678년)나 『沙川鄉約廳節目』(1724년) 등 향약문서는 조선후기 동래 지역 향약 연구의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에서 발굴된 고문서 중에서 호적, 신호적 자료가 많지 않았다. 동하면과 같은 신호적은 발굴되었지만, 조선후기 호적은 처음 발굴된 것이다. 사천면에 한정된 호적중초이지만, 부산지역 사회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德浦洞 降仙臺 古文書에 대하여」(鄭景柱)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17) 김동철, 「18~20세기초 東萊府 巨闕里 南原 梁氏 집안과 그 古文書」

동래부 서면 거벌리(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세거해 온 남원 양씨의 후손인 梁賢弼씨 소장 고문서를 발굴, 정리한 글이다. 고문서는

34) 白珥成, 「朝鮮時代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의 內容 및 資料分析」 및 발간사 참조; 『낙동강사람들』 10호(1999)에 이미 발굴되어 고문서 목록이 소개되어 있다 (158~160쪽).

준호구 47점, 薦旨 6점, 차첩 1점, 家契 2점, 垆地契 1점, 모두 57점이다. 준호구는 1783~1894년, 천지는 1835~1900년, 가계는 1901년, 대지계는 1905년이다. 가계 2점은 『석대천씨오대六孝古文書』에 수록된 가계³⁵⁾와 양식이 일치한다. 대지계는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는 발굴된 적이 없는 자료이다.³⁶⁾

이들 고문서와 족보 등을 이용하여, 이 집안의 가계를 복원하고, 각종 무청 선생안을 비교하여 이 집안의 무임직 경력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혼인 대상 집안의 무임직 경력도 정리하였다.

(18)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부 吏族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조선후기 동래부의 대표적인 이족인 밀양 박씨 집안 소장의 고문서를 발굴하여 그 집안을 복원한 글이다. 이 집안 사람으로는 『倫臺集』을 지은 朴周演과 『東渡日史』를 지은 朴祥植 부자처럼, 2대에 걸쳐 저서를 남긴 사람도 있다. 『倫臺集』은 일찍 국역되었으나,³⁷⁾ 그의 문학세계는 최근에야 연구되었다.³⁸⁾ 특히 『東渡日史』는 1880년 김홍집 수신사행 때 향서기로 참가하여 남긴 사행일기로 일찍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³⁹⁾ 2대에 걸쳐 『倫臺集』과 『東渡日史』를 남긴 것만으로도 이 집안은 부산지역사에서 관심을 끄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박주연은 『芝田集』을 남긴 李光昱⁴⁰⁾의 고모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 255쪽, 260쪽.

36) 김동철, 「18~20세기초 東萊府 巨闕里 南原 梁氏 집안과 그 古文書」, 405쪽에 서는 이 가계와 대지계가 동래부에서 발굴된 것으로는 실물로서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1995년)에 이미 가계 2점의 실물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표현이 잘못되었으므로 수정한다.

37) 朴基德, 『국역 倫臺集』, 복지출판사, 1985.

38) 엄경흠, 「五倫臺와 竹林 朴周演의 文學」 『동양한문학연구』 15집, 동양한문학회, 2001.

39) 金錫禧, 「《東渡日史》 解題」 『釜大史學』 6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2.

그 동안 이 집안이나 그 관련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였다.

이 집안의 고문서는 준호구 17점과 신호적 3점의 모두 20점이다. 이 집안에는 많은 문헌이 있었으나, 1923년 12월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준호구는 1840~1894년, 신호적은 1900~1908년이다. 고문서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져 있으나, 자료 자체가 소개되지 않았다.

(19) 손숙경, 「19세기 후반 關王 숭배의 확산과 關王廟 祭禮의 주도권을 둘러싼 東萊 지역사회의 동향」

현재 (사)동래기영회에는 「(關皇廟 移建 관계)所志」 2점(1874, 1875년), 「(關皇廟 移建 관계)上書」 1점(1877년), 「關皇影堂重修勸募文」(1909년), 「關聖廟享需費募緣文」(1920년) 등 동래 관왕묘 관련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글은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동래 지역의 關王 숭배와 관왕묘의 건립, 그리고 關王廟 祭禮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람과 무임 이서 집단 간에 경쟁하는 東萊 지역사회의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고문서 자체를 다룬 글은 아니지만, 관왕묘 및 기타 관련 고문서를 기본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래 관왕묘 관련 고문서 3점(소지, 상서, 권모문)과 關王圖像을 영인하여 수록하고 있다.

IV. 고문서 연구의 동향과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의 중요한 연구 동향과 발굴된

40) 김동철, 「한말 東萊 芝田 李光旻 집안과 그의 문집 및 장서」 『항도부산』 14호, 1997.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① 각종 무청선생안의 발굴과 무임 연구

조선시대 부산은 행정구역상 동래부에 속하였다. 부산지역을 관장했던 동래부의 위상은 동래부 동헌 앞 대문에 걸린 「東萊獨鎮大衙門」과 그 양쪽 기둥에 걸린 「交隣宴享宣慰司」, 「鎮邊兵馬節制營」이란 현판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조선후기 동래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외교, 무역의 창구 기능을 했던 국방 외교 무역의 중심지였다. 국방의 중요성 때문에 경상좌수영, 부산진, 다대진이 설치되어 있었다.⁴¹⁾ 이러한 동래부의 위상은 부산 지역에 남아있는 일본 관련 문화유적의 분포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⁴²⁾ 이러한 양상은 유적뿐만 아니라 고문서 등 문헌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후기 각 지방에는 행정을 담당한 作廳과 군사 업무를 담당한 무청이 있었다. 조선후기 軍制 개편과 함께 지방 방어체제인 鎭管體制가 정비되면서 지방의 군사적 역할에 상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무청이 만들어졌다.⁴³⁾ 이러한 군제 변동과 1655년 동래 獨鎭의 설치 등에 따라 동래에 1658년 別武士廳이 무청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동래의 무청은 자료에 따라 8청, 또는 9청으로 나타난다. 중군청, 장관청, 군관청, 무사청, 교련청, 별기위청, 수첩청, 도훈도청의 8청에 봉대청(또는 친병위청, 작대청) 등이 추가되었다.⁴⁴⁾ 무청이 생긴 이래

41) 김동철, 「조선후기 국방·외교·무역의 중심지 부산」 『부산의 역사와 문화』(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대 출판부, 1998.

42)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한국민족문화』 23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43) 李勛相, 「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運營과 그 特性-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 182쪽.

44) 閔善姬, 앞의 논문.

로 각 무청의 무임을 지낸 자를 기록한 先生案을 작성하는 전통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동래 외에 慶州, 南原 등지에서도 확인된다.⁴⁵⁾

동래 무청의 무임선생안은 현재 부산 충렬사와 동래기영회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선생안은 모두 발굴되어 자료집으로 영인 출간되었다(<목록> 3, 13). 이에 대한 자세한 해제의 글도 작성되었다(<목록> 3, 5, 13). 이러한 무청선생안의 발굴 공간은 부산 지역 사회사, 경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널리 이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鄉班⁴⁶⁾, 무임 집안, 향리 집안 등 유력 가문⁴⁷⁾(<목록> 15, 17, 18), 왜관 대일 무역상인⁴⁸⁾을 비롯한 동래상인(<목록> 7), 畫員⁴⁹⁾, 공작미 運米監官⁵⁰⁾, 동래기영회 회원⁵¹⁾ 등 다양한 인간집단을 연구할 때 항상 비교 검토하는 필수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② 부청선생안과 이서 연구

부산지역 조선시대의 고문서 연구는 『부청선생안』이 공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선생안은 『항도부산』 1호에 게재될 1962년까지는 원본이 동래군에 소

45) 李勛相, 「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運營과 그 特性-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 188쪽.

46) 閔善姬, 앞의 논문.

47) 閔善姬, 앞의 논문; 김동철, 앞의 논문(1997).

48) 金東哲,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1993;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민족문화』 2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에 참가한 商賈都中の 규모와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8집, 1998.

49)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50) 金東哲,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作米 問題」.

51) 강문규, 「19세기 東萊耆英會의 설립과 활동」,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장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로는 원본의 소재를 알 수 없다. 이 안은 「金智에서 文達壽까지」 637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이다.

이 안은 부청의 직임을 역임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선생안이다. 이 안에 대해서 이훈상은 「府廳은 作廳은 아닌 戶長이 업무를 주재하는 府司나 邑司는 일컬는다. 『부청선생안』은 호장이나 부호장 등을 역임한 인물을 수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은 대개 이방이나 부이방도 거치게 마련이므로, 이들까지를 포함한 포괄한 향리 사회를 주도한 상층부 구성원의 명단으로 보아도 좋다」라고 하였다.⁵²⁾

이 안의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1859년 당시 동래부 作廳의 時任職 32명을 비교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보면 首戶長 宋垌浩, 刑房書契兼色 金彝健, 李雨慶, 尹浩權, 工房色 宋倫赫, 官廳色 朴斗演, 大同色 尹任俊(尹壬俊) 7명이 부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 수호장, 부호장, 이방, 부이방 가운데는 수호장만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 윤호권은 1871년에 吏房을 역임하였다. 나머지 5명은 호장, 부호장, 이방, 부이방을 역임하였는지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동래지역 최고의 무임직인 中軍 출신 171명 가운데 27명이 『부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청선생안』에 올라 있는 인물이 중군 외 다른 무임직을 역임한 경우는 허다하다. 따라서 『부청선생안』에 수록된 인물이나 집안을 분석하는 것은 조선후기 동래지역 이서집단이나 무임집단을 연구하는데 비껴갈 수 없는 작업이라 생각한다(이상은 <목록> 17).

이 부청선생안은 이름만 적혀 있는 명단이므로 그 자체로는 수록

52) 李勛相, 「朝鮮時代의 邑司와 作廳-豊基의 『郡司謄錄』과 『行任案』(附: 東萊의 『府廳先生案』-, 319~321쪽.

된 명단 인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종 호구단자, 준호구 등 호구문서와 족보 등의 이용을 통해서 일부나마 그 인물이나 집안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시도에 따라 부청선생안에 수록된 밀양 손씨, 밀양 박씨(<목록> 14, 17), 안산(연안) 이씨 집안⁵³⁾의 일부가 복원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래기영회 창립회원 40명 가운데 7명이 이 선생안에 수록된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⁵⁴⁾

③ 동래부 소속 面里 단위 고문서 발굴

1990년대에 들어와 발굴된 고문서 자료 가운데는 동래부 소속의 면 단위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東下面(<목록> 6, 8, 12), 南村面(<목록> 9), 沙上面(덕포리)(<목록> 10), 沙川面(<목록> 16) 관련 고문서가 그것이다. 『東萊史料(2, 3)』에는 동래부 관련 읍지가 일괄 정리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이들 동래부 읍지와 규장각 소장의 『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奎 17947, 1904년)에 나와 있는 面의 명칭을 중심으로 동래부 소속 面의 시기적 변화 추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동래부 소속 面의 변천

1740년	읍내면	동면	서면	남촌	동평면	북면	사천면						
1871년	읍내면	동면	서면	남촌면	동평면	부산면	북면	사상면	사하면				
1895년	읍내면	동면	서면	남촌면	동평면	부산면	북면	사상면	사하면				
1899년	읍내면	동면	서면	남촌면	동평면	부산면	북면	사천면					
1904년	읍내면	동상면	동하면	서상면	서하면	남상면	남하면	동평면	부산면	북면	사상면	시중면	사하면
출전 : 1904년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 동래사료 2, 3 수록 읍지.													

53) 김동철, 앞의 논문(1997).

54) 강문규, 앞의 석사학위논문, 22쪽.

조선후기 면리제의 발달에 따라, 지방의 군현은 면리제로 편성되어 있었다. 동래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동면, 서면, 북면이나 남촌(면)의 존재로 보아 조선전기 방위면의 유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 읍지에 읍내면은 동부, 서부로, 사천면은 상단,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사천면의 상단과 하단은 1871년 읍지에서는 사상면과 사하면이라는 독립된 면으로 분화 발전하였다. 그러나 위의 읍지에 표기된 면의 명칭이 동래부의 면리제 추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들 분화된 면이 관행상의 호칭인지, 면리제의 면 단위 편제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8세기 말에는 면이 분화해 가는 추세였음은 분명한 것 같다. 18세기 이후 면리제가 발달하면서 절목, 완의 등 면 단위의 고문서 생산도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발굴된 면 단위의 관련 고문서는 조선후기 면리제의 발달과 관련하여, 동래부 관하 면의 분화 양상이나 면의 기능, 성격 등 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동래부의 면리제를 구명하는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아 자료가 사장되는 느낌을 준다.

④ 왜관 대일무역상인 등 동래상인과 통신사 등 대일관계 자료의 발굴과 연구

조선후기 동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규정된 ‘방어와 교류의 도시’, ‘국방, 외교, 무역의 도시’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서 개항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본과의 통로였다. 이 통로는 항시적인 倭館과 한시적인 通信使, 問慰行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일교류의 중심지였던 부산의 위상에 비한다면, 현재까지 발굴된 고문서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장각 소장 『상고안』과 각종 무청선생안의 비교를 통해 동래상인의 실체를 밝히려고 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목록> 7). 지금까지 발굴된 무청 선생안이나 부청선생안은 왜관의 商賈都中等 대일무역상인을 중심으로 상업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 가운데 『동래향교향청고왕록』(<목록> 4)에 수록된 「手標米防禁節目」은 대일 公貿易 수출품인 공작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⁵⁵⁾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한 처럼, 『東下面古文書』(<목록> 8)에 수록된 「東下四洞節目冊」의 1769년 완의 내용은 모두 25개 조항인데, 이 중 6개 조항이 通信使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통신사가 부산에 머물면서 해운대를 유람할 때, 동면 하단의 陸三洞(중동, 우동, 좌동)과 海雲臺洞(海洞)이 차일, 휘장, 돛자리, 假家 목재 등의 조달과 통신사행원의 종자, 하인에 대한 접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신사 관련 자료로서 매우 드문 사료이다. 그리고 「東下面海雲津八送使入給生鮮掾弊完文」(1815년)은 일본(대마도)에서 파견되는 年例八送使나 大差倭, 漂大差에게 지급하는 동하면 해운대진의 생선에 대한 부담 규정, '倭宴의 勸農은 어민 중 稍實한 자를 선정하여 생선을 入給하도록 한' 규정 등은 왜관 등 한일관계사와 부산지역사를 접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덕포동 강선대 고문서(<목록> 10)에 포함되어 있는 3건의 「沙上面 德圃里居民 等狀」은 왜관과 개항 이후 일본인 전관거류지, 부산지역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한일관계사 관련 중요한 고문서이다.

⑤ 관왕묘 관련 고문서와 관우신앙 연구

동래기영회가 소장하고 있는 동래 관왕묘 관련 고문서에 주목하면서 관왕묘를 지역사회, 운영집단과 관련하여 운영 및 의례, 무임, 이

55) 김동철,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作米 問題」, 136~142쪽.

서집단의 이해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1990년대에 들어 이루어졌다. 관우의 도상까지 발굴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목록> 5, 13).

최근에 와서 이들 고문서를 활용하여 동래 지역의 關王 숭배와 관왕묘의 건립, 19세기 후반 관왕 숭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關王廟 祭禮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림과 무임 이서집단간이 경쟁하는 東萊 지역사회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목록> 19).

이 연구에 의하면 관왕 도상은 원래 부산진에 있던 것이 동래로 옮겨졌다. 우리나라 남쪽 최전방의 국방 도시인 부산에 武神이며 軍神인 關羽를 모시는 제당의 존재는 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부산에는 崔瑩을 모시는 武愍祠와 제당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부산진 동부리에서 정월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부산진에 관우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면, 그 관련 문헌들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왜관에서 대일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동래상인 등이 무임층과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우 숭배 문제는 동래 지역 무임층과 상인층의 의식세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고문서의 발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⑥ 향안, 향청, 향약 및 사우, 향반 집안 관련 고문서와 향반층 연구 향안(<목록> 3), 향청(<목록> 4, 14), 향약(<목록> 16)) 및 향반 집안 관련 고문서(<목록> 5, 13)가 발굴되었다.

조선후기의 동래는 문과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전국 차원의 양반사회에서 볼 때는 양반의 위세가 매우 미미한 곳이었다. 鄉廳(<목록> 4) 자료가 발굴 공간되면서, 동래의 향반사회의 성격을 무척조직과 비교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무칭이 上下로 분화되어, 최상급 무임직인 中軍은 향반들이 독점하고, 상급 무임직 또한 다수 차지하는 등 향반중심의 지배구조가 강인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동래에서는 1598년 처음 향안이 만들어졌다. 향안 작성을 주도한 가문은 경주 김씨, 여산 송씨, 강릉 김씨, 죽산 박씨, 청도 김씨 다섯 가문이었다. 이들이 대표적인 향반이었다. 그 후 향안에 入錄된 향반 가문은 동래 정씨, 남평 문씨, 월성 김씨, 은진 송씨, 월성 박씨, 현풍 곽씨, 영산 신씨, 영월 신씨 등이다. 관직 진출이 거의 없었던 동래에서는 향반 가문의 지위는 儒任, 鄉任, 상급 무임, 향교와 서원의 각종 재임 등으로 보장되었다. 『東萊鄉廳考往錄』에서 알 수 있듯이 향청관련 일지가 지속적으로 쓰여진 것은 향청이 사족지배 질서 유지를 위한 중심기구로서 그 비중과 지속성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의미하며, 이런 자료의 존재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중요한 자료이다.⁵⁶⁾

또한 부산의 향반사회를 알 수 있는 자료는 祠宇 관련 자료이다. 忠烈祠 소장 고문서는 앞서 언급한 무칭선생안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三節祠 소장 고문서는 『三節祠祇謁錄』(1839년), 『三節祠考往錄』(1839~1852년), 『三節祠請助文』(1840~해방 후), 『尙節契案』(1930년), 『先行行蹟記』, 『奉安祭參齋錄』, 『歷代山長有司錄』(1839~1932년) 등이다. 삼절사가 성립된 1839년을 전후로 20세기까지 기록된 것으로, 향반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향반 가문 소장 고문서는 호구단자가 주종을 이루며, 鄉任과 齋任의 천지, 교지, 상서, 통문 등이다. 특히 동래에서 꼽히는 향반으로 인정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임진왜란 宣武原從功臣과 관련된 고문서도 있다 (<목록> 5, 13).

그리고 『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목록> 11)는 風憲과 約正의

56) 민선희, 앞의 논문.

書目, 첩정, 사림의 등장, 상서, 첩정, 향교 서목, 첩정, 상서 등 영양 천씨 일문에 한정된 자료이지만, 효행의 표창과 관련된 사림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범어사와 향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문서, 향약 등도 발굴되었다.

⑦ 면리 단위 戶籍 및 가문 소장 戶口 문서 발굴과 가문 연구

호적은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호적대장은 서울대 규장각이나 일본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에 상당한 분량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언양현 호적대장이 발굴되기도 하였다.⁵⁷⁾ 그러나 동래지역의 구호적 대장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동래 호적대장이 발굴되기 어려운 사정의 하나는 그것을 불태워 문었기 때문이다. 즉 조상들의 성명이 기재된 호적대장이 창 등의 도배에 쓰일 것을 우려하여 이를 태운 후 그 남은 재를 파묻고 비석을 세웠다. 그 후 음력 4월 23일에 永報壇 아래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동래 13개 면 거주민들이 조상들이 수록된 호적대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儀禮가 일제시기에 있었던 것이다(<목록> 13, 51~53쪽).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함안조씨 사상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沙上面戶籍中草』(<목록> 16)의 발굴은 그 자체의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호적 발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히적으로는 개별 가문의 것이 아닌, 면리 단위 것으로는 동하면(『東下面戶籍臺帳』 1책, 1908, 391면, <목록> 6, 8)과 南下面 大一里(『慶尙南道東萊府戊申條帳籍』, 1908년, 20면, <목록> 9) 것이 발굴되었다. 남하면 대일리 것은 19명밖에 되지 않지만, 동하면 것은 동하

57) 김석희, 『조선후기 지방사회사 연구』, 해안, 2004.

면 전체의 호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면리 단위가 아닌 각 가문과 관련된 준호구, 호구단자, 신호적 등 호구 관련 자료는 개별 분산적으로 많은 양이 발굴되고 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가문을 복원하고 연구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몇몇 가계만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목록> 13, 15, 17, 18).

특히 일찍 자료가 발굴된 경주 최씨 호구단자(준호구 포함)는 모두 47점이다. 이 가운데 호주의 직역이 水營待變軍官, 旗牌官, 別軍官, 別騎衛 등 무임직이 기재된 것이 25점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거주지는 모두 사천면, 사상면이다(<목록> 1). 사상 쪽에 거주한 무임집안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이 호구 문서와 무청 선생안을 비교 검토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고문서의 존재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V. 고문서의 발굴과 연구를 위한 제안

지금까지 <목록>에 정리된 19편을 포함한 고문서를 활용한 주요 연구성과들의 내용을 개관하고,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앞으로 고문서의 보존, 발굴, 연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연구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① 우선 지금까지 발굴된 고문서에 대한 안전한 보존이 필요하다. 발굴된 고문서가 박물관 등에 기증되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 소장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청선생안』은 『항도부산』에 수록된 이후 원본이 분실되고 말았다. 동래기영회의 『기영계안』도 원본은 없어지고 복사본만 남아있는 상태다.

수해, 화재, 도난, 분실, 매매, 방치, 무지 등 여러 요인으로 지금도 고문서 등 자료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 도서관 등 보관 시스템이 마련된 기관에 기증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런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관리, 연구, 홍보하는 고문서자료관(공문서관, 기록문화유산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 박물관과 함께 지역공문서관이 병존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 아카이브의 양성도 장기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효과적인 고문서 수집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 고문서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발굴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히 무언가를 정리하다 찾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산시청, 구청,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박물관, 도서관 등 관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을 찾습니다’, ‘○○을 아시나요’, ‘○○과 놀자’, ‘○○과 만납시다’, ‘○○을 위하여’와 같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벤트성 고문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홍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문서 소장자가 적극 고문서를 기증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립박물관에서는 시립박물관 개관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관 때까지 매년 1회 이상 준비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1997년에는 그 첫 사업으로 ‘한성판윤전’을 개최하였다. 『한성판

윤전』도록(1997년)에는 한성부, 한성관윤과 관련된 고문서 등 많은 문헌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부산에서도 ‘동래부사를 찾습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고문서 기획 첫 사업으로 ‘동래부사전’ 특별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③ 지금까지 부산지역 관련 고문서의 발굴과 연구성과는 양과 질의 면에서 적지 않았다. 그 중 연구와 접목되어 가장 많이 활용된 고문서로는 각종 무청 선생안, 부청선생안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래부사, 경상좌수사, 부산진첨사, 다대진첨사, 절영도진첨사 등 선생안이 있다. 이들 선생안은 분산 정리되어 있다. 발굴된 자료라도 DB 구축이 이루어져 전산망을 통해 쉽게 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지역의 다양한 인간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지만, 이를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또한 명단의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상호 관련 자료인 호적대장, 호구단자, 준호구, 족보 등의 DB 구축도 필요하다.

근현대사에 한정된 경우지만, 「근현대 부산연구회」가 지원하는 ‘일제시기 부산지역의 일본인사회 연구 및 관련자료의 전산화’ 및 ‘연구 DB Search’는 부산지역사 DB 구축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DB 구축은 두 종류의 선생안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고문서의 DB 구축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④ 고문서 용어와 정리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고문서 자료집 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서 연구성과는 자료의 발굴과 그것을 활용한 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목록>에서 본 것처럼, 그 동안에도 이런 작업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발굴된 자료 가운데 공간되지

못했거나, 일부만이 소개되어 자료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자료를 자료집에 충실히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류, 간행하는 표준화된 고문서 분류 코드가 만들어져야 한다. <목록>의 연구성과에서도 각각의 연구자에 따라 용어도 제대로 통일이 안 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많이 접할 수 있는 호구 문서의 경우,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호구단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교지와 교첩도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와 앓는 경우도 있다. 소지, 등장, 첩정류의 경우는 고문서의 명칭이 실로 다양하다. 또 고문서를 정리할 때 최소한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의 서식이 필요하다. 원본을 대조하지 않고 목록만 보아도, 고문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고문서에 대한 정확한 탈초와 국역이 이루어져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목록>의 연구성과를 개관하면서도 언급하였지만,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영인, 탈초, 번역, 해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탈초, 번역되지 않고, 원본 상태로 영인 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원본이 正字로 쓰여져 판독이 쉬운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草書로 쓰여져 판독이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목록>의 연구성과에서 본 것처럼, 고문서의 발굴, 해제, 연구가 매우 한정된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초서로 쓰여진 고문서의 국역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고문서에 대한 접근을 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발굴된 고문서는 정확한 탈초와 국역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초와 해석을 위한 연구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학계의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⑥ 고문서 해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문서 연구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가 낮기 때문이 아니다.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공감하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은 노력의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草書로 쓰여진 난해한 고문서는 판독하여 사료로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고문서 해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장기적인 프로그램,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원) 정규 과정의 고문서 수업만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공적 채널을 통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94년부터 국내사료(한국초서), 국외사료(일본초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초서 연수과정은 특히 대마도 종가문서를 읽고 배우는 과정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고문서강독」, 「한국고문서강독」 스터디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고문서 연구의 필요성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겨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초서체로 된 對馬島 宗家文書가 산적해 있고, 한일교류사의 중심지였던 부산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일본고문서강독」 스터디그룹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부산 지역의 관변 기관, 학회, 연구회, 연구소, 대학 부설 기관 등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⑦ 새로운 고문서의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록>의 고문서는 개별 가문이 소장한 것도 있지만, 동래향교, 동래기영회, 좌동 노인정, 수영기로회, 상강선대 당집, 사상연구재단보존회, 삼절사, 충렬사 등 단체가 소장하고 있던 것도 많다. 고문서가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우선 祠宇, 齋室, 祠堂을 들 수 있다. 최근 義勇堂(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소재)에서 『龜山壇所考往錄』, 『考往錄』, 『到記』, 『參齋錄 任案錄』, 教旨(1737년, 1769년), 教牒(1737년) 등 고문서를 확인한 바 있다.⁵⁸⁾ 경로당, 노인정, 기로회, 당집, 보존회 등 단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이 작업은 시청, 구청, 동 단위의 협조를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개별 문중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가문 외에도 소장 가능성이 있는 가문이 많이 있다. 우선 각 지역의 토박이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신문』에 「도심 5개姓 집성촌」이란 제목으로 남구 용호동의 김녕 김씨, 파평 윤씨, 개성 왕씨, 담양 전씨, 밀성 박씨 집성촌이 소개된 적이 있다.⁵⁹⁾ 동성마을에 대한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⁶⁰⁾, 1970년대 조감제의 조사⁶¹⁾를 활용하면, 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 문화원이나 향토사학자와 연계된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낙동문화원에서는 「향토의 전통문중 탐방기」를 잡지에 실고 있다. 「구포의 토박이 吳氏 가문을 찾아서」(『낙동강사람들』 16호, 2004)에는 오씨 가문 소장의 고문서 일부가 수록되

58) 김동철 외, 『2005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역사자료 부산광역시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2005.

59) 『국제신문』 2006년 1월 27일.

60) 조선총독부, 『朝鮮の姓』, 1936.

61) 趙甲濟, 「同族部落-釜山市同族部落의 變貌-」 『월간중앙』 10월호, 1976.

어 있다.⁶²⁾

⑧ 고문서 조사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부산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면서 市域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기장군, 강서구에 새로 편입된 지역이 대표적이다. 『기장군지』에는 김신득(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최창진(기장읍 대라리), 이현길(기장읍 당사리), 한정도(장안읍 좌천리), 이수호(장안읍 오리), 전달천(정관면 병산리), 장현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신준성, 송영복 소장의 교지, 帖, 호구, 단자, 통문, 표창장 등 고문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수호의 경우는 교지, 첩, 호구단자, 준호구 등을 소장하고 있다.⁶³⁾ 이 외 문병진택(철마면 웅천리)도 교지 6점(1775년 4점, 1792년, 1794년)을 소장하고 있다.⁶⁴⁾

강서구의 경우 1991년 10월~1992년 1월 녹산지역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고문서를 비롯한 많은 문헌자료가 발굴되었다.⁶⁵⁾ 이 학술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기장군과 강서구뿐 아니라 양산, 김해, 울산, 마산, 진해 등 주변 지역에서도 부산 관련 고문서가 발굴될 가능성은 크다. 18~19세기 농민층의 분화, 자연재해, 농민항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거주지 이동이 자주 일어났다.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동래 정씨 鄭斗泳택 소장 고문서는 111점이다. 준호구, 호구단자, 첩, 소지, 등장, 전령, 군안, 입안 등 다양하다. 대부분 양산 관련 자료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01년 1월 상무사에서 鄭奎祥을 「東萊左社 都任房 明査員」으로 임명하

62) 백이성, 「향토사 수집 자료 내용 분석(번역)과 활용방안 개요」(『낙동강사람들』 17호, 낙동문화원, 2005)에는 『구포사립구명학교 취지문 및 기탁금 명부』, 호자 천승호 열녀 이씨 교지 및 지역 유림 상소문 등 11건의 고문서, 근대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63)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하)』, 기장군, 2001, 381~392쪽.

64) 김동철 외, 앞의 보고서(2005) 참조.

65) 『釜山 文化遺蹟 學術調查 報告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2.

는 裸負商 임명 帖이다. 경상도 보부상 자료는 창녕, 고령, 거창 등에 많이 남아 있으나, 양산, 동래, 기장을 아우르는 동래좌사 자료는 거의 없다. 1점이지만 부산지역 보부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⁶⁶⁾

⑨ 고문서 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전근대~근대를 아우르는 帳簿類의 고문서도 많이 있다. 최근 부산의 향토기업인 남선창고 관련 자료가 조사 보고되었다.⁶⁷⁾ 남선창고는 부산의 근대기업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이다. 회사의 사주는 안산(연안) 이씨 집안이다. 지전 이광욱의 증조부대 두 형제로 나누어진 집안이다. 필자가 이광욱 집안을 조사할 때는, 남선창고와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 남선창고를 조사하면서 그 관계를 알게 되었다.

『항도부산』은 16호의 고문서 발굴자료 소개(<목록> 17)를 끝으로, 18호 이후 고지도 자료를 제외하면 발굴자료가 모두 근현대문서뿐이다.⁶⁸⁾ 근현대문서의 사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동안 근현대문서 발굴자료 소개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고문서 발굴소개가 최근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또한 문제다. 따라서 전통적인 집안뿐만 아니라, 박기중, 윤상은, 장우석, 정기두, 문상우 등 부산 근현대사에서 비중 있는 집안에 기초조사도 시급하다.

6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년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1)』, 문화재청, 2005, 335~350쪽.

67) 차철욱, 「植民地時代 釜山 南鮮倉庫株式會社 關係 資料에 對하여」, 『국제シボジウム2005 Proceedings』, 구주대학 한국연구센터 주최, 2005.

68) 차철욱 김동철 「근대 부산지역 금융관련 자료와 그 성격」, 『항도부산』 18호, 2002; 차철욱 「일제강점기 구포와 龜浦郷土誌의 사료적 가치」, 『항도부산』 19호, 2003; 배석만 「조선중공업주식회사 경영자료의 내용과 성격」, 『항도부산』 20호, 2004; 차철욱 「제2회 군정경상남도고문참여관회의록」의 내용과 성격 같은 책; 배석만 「朝鮮靑氣船株式會社의 경영자료 분석」, 『항도부산』 21호, 2005; 김정남 「日帝强占期 釜山地域 市街地計劃에 관한 公文書」 같은 책; 노기영 「日帝末 戰時海運과 釜山港 關聯 資料紹介」 같은 책.

⑩ 고문서 뿐 아니라 호패, 금석문, 고지도, 고서, 현판, 그림, 사진, 사진엽서 등 다양한 자료의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금석문은 부산 시사편찬위원회가 2002년 간행한 『부산금석문』에 의해 일단 정리가 되었다. 최근 부산지역 고지도의 자료 수집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⁶⁹⁾

부산시사편찬위원회도 고지도 수집과 정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지도 발굴 사업을 지원하였다.⁷⁰⁾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항도부산』을 통해 고문서, 근현대문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이것은 부산지역 고문서, 근현대문서의 발굴, 정리, 연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고문서를 비롯한 관련 문헌의 조사나 자료집 발간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 성과를 개관하면서, 고문서 연구의 동향과 부산지역에서 발굴된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 및 앞으로 고문서의 발굴과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았다.

부산지역의 고문서 연구는 1962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활동과 『항도부산』의 간행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5~

69) 김기혁, 「지역연구 자료로서의 부산 지역 고지도 기초 연구」 『부산지리』 9호, 2000;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항도부산』 18호, 2002; 김기혁 외, 『釜山·蔚山·慶尙南道 市郡別 古地圖』(1~8권), 부산대 부산지리연구소, 2004;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연구-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0권 1호, 2005.

70) 『부산 고지도 자료조사 및 수집용역-1차년도 결과보고서-』, 부산대 부산지리연구소, 2005; 『부산 고지도 제2차 자료조사 및 수집용역 결과보고서』, 부산대 부산지리연구소, 2006.

1988년초 시사편찬위가 활동을 중단하고, 『항도부산』이 폐간되면서, 연구활동 또한 침체하였다. 그러다가 시사편찬위가 1988년 활동을 재개하고, 1991년 『항도부산』이 복간되면서,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고문서 연구활동이 시사편찬위의 지원과 연동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인 1989년 『동래사료』가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충렬사에 소장된 동래 각 무청의 선생안이 수록되어 있다. 동래는 국방의 요충지여서, 다른 군현에 비하면 무청이 발달하였다.

『항도부산』이 복간되면서, 자료 발굴 소개라는 독립된 지원 분야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고문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1993~1997년에는 해마다 『항도부산』에 고문서 연구가 수록되었다. 고문서 연구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부산지역의 짧은 고문서 연구사에 비하면, 많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특히 무청 선생안의 발굴과 무임 연구, 부청선생안과 이서 연구, 상고안과 동래상인 연구, 동래 관왕묘 자료와 관우신앙 연구, 향청고왕록과 향반 연구 등은 새로운 고문서 자료의 발굴과 이를 이용한 지역사 연구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면리 단위의 구호적, 신호적의 발굴도 중요한 연구성과다.

이미 발굴된 고문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법, 미발굴된 고문서는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고문서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 발굴된 고문서를 쉽게 이용하기 위한 국역 작업과 정리 작업, DB 작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문서 연구성과가 한 단계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부산광역시의 위상이라면 이제 고문서만을 전

문적으로 다루는 자료관(문서관), 전문 아카이브를 가질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박물관, 도서관의 보조 역할이 아닌, 독자적인 대등한 기능을 하는 자료관(문서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비 준비 작업으로 우선 고문서를 모으고, 고문서를 살리고, 고문서를 가까이 하는 박물관의 '동래부산 특별전' 등 고문서 기획전이나, 「부산지역사와 고문서」와 같은 제목의 학술회의라도 한번 열어보자. 아직 부산 지역 고문서와 관련된 독자적인 특별전이나 그 흔한 세미나, 심포지움 한번 열린 적이 없다. 부산지역 고문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